



# 첫회, 힘들어 지칠 때마다 은혜로 이겨주시는 주님

내가 태어난 곳을 말하려고 하니 먼저 가수 조영남 씨가 부른 '화개장터'란 노래가 떠오르네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삼진강 즐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랫마을 하동사람 뒷마을 구례사람 댕 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이 노래말처럼 우리집은 위로는 화개장터, 아래로는 광양제철소가 있고, 집 앞엔 호남의 젓줄 삼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건너 저 너머에는 약양면 정서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에 위치한 내 고향은 매실로 유명해서 3월이면 매화꽃 축제로 관광객이 물려오는 전라남도 광양군 다압면에 위치한 아주 공기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당시 이곳은 아스팔트가 없는 돌 자갈 흙 길이라 등하할 때만 차가 한두 대 다닐 정도로 한적한 시골이었고, 집이 띄엄띄엄 있어 동네 아이들과 놀기도 쉽지 않은 산골 중의 산골이었습니다.

## 어려서 마을 어른들로부터 복동이라고 칭찬받아

저는 2남 3녀 중 4째인데 아버지는 꿈이 큰 분이신지라 남들보다 우리 가족이 좀 더 평화로운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셔서 초기집을 할어 새 집을 지으셨고, 남부럽지 않게 해 주고 있으신지 자녀들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시절 흑백 TV도 있었고, 유명한 가수 테이프를 다 사 오셔서 카세트 플레이어로 틀어놓아 집에서 노래 소리가 자주 흘러 나왔습니다. 동생은 한 번 들은 유행가를 그대로 잘 따라 부를 정도로 재능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나보다 네 살 어린 동생은 엄마 아버지의 좋은 점은 다 닮아 키도 크고, 외모도 잘 생겼고, 노래와 운동 모두 다 잘하는 만능재주꾼이었습니다. 저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었죠.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면 연중행사보다 데리고 갈 것처럼 목욕을 시켜 놓고 나보고는 집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 안 사실인데 오빠도 아이들이 모자라 제가 아이들이 바라졌는데 딸이라 많이 서운하셔서 동생을 또 낳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난 동생보다 잘난 것도 없고 말로 태어나 집에서 덕 보는 일도 없는 데 동네 어른들께서 집에 놀러 오시

면 제가 복이 많다고 항상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복이 많다는 걸까? 왜 그러실까' 의문이 들곤 했지만 어린 나이로 그저 좋은 말이라니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다

1970년대에는 TV가 귀한 시절이라 저녁때만 만화영화 보려고 동네 아이들이 우리집으로 다 모였고, 아이들이 TV를 보고 가면 방안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휴먼지로 가득하여 청소하기 바빴습니다. 일요일에는 은하철도 999와 캔디를 서로 자기 좋아하는 프로를 보겠다고 동생과 다투다 결국은 제가 양보를 하곤 하였습니다. 엄마가 마음 아파하실까봐서였죠.

엄마가 밭에 가서 일할 때 따라 갔다가 불 일이 보고 싶을 때면 꼭 참고 집에 와서 불 일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육설금지 카드를 만들어 학생들이 욕을 못하게 학교 법을 만들어 실행했을 때 욕을 하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욕을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알기에 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 대구에서 승리제단을 알게 돼

평온한 가운데 잘 살고 있었던 우리집이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화투에 손을 대어 경찰서에 하루가 멀다 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셨거든요.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슬프고도 괴로운 일, 그 머나먼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생은 전화를 하고 저는 휴학을 하고 엄마는 괴로움으로 매일 슬퍼하시며 저희들에게 그 모습을 감추시려 애쓰셨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괴로우신지, 난 학교를 못 가는 것보다 엄마가 괴로우시라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나 보다 하고 말이죠.

## '자칭 하나님' 사건(요10:33)은 참구세주가 겪을 목시다

### 하나님께서 예수 입을 빌려 사람들이 전부 신(神)이라고 말씀하심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라는 성경구절을 예수 자신이 읽었다면, '예수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아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 82편 6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전부 신이라고 하였고 또한 사람이 전부 지존자(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의아들이라고 외칠 수는 없는 것이다(2002. 1. 14 이긴자 말씀 참조).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와 같이 예수가 외치고 있는 데, 과연 예수 자신은 시편 82편 6절의 기록을 제대로 알고 말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아니다. 잠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당할 일들을 내다보시고 그리스도의 예표(豫表)를 낱길 목적으로 예수 입을 빌려 사람들이 전부 신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다. 오늘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에 의해서 "사람이 원래 신이었다."라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또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의 진의(眞意)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었듯이 현재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되는고로 하나님만이

사는 천국(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온전한 구원론을 논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 자신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을 하니,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항변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네가 한자 사람에게 불관한 존재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였다. 예수가 답변하기를, "너희 율법에 '내(하나님)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으니 성경 말씀을 폐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 '자칭 하나님' 논란(요 10:33) 진짜 구세주 재판에서 재현됨

사실 요한복음 10장의 전체 내용은 진짜 구세주로 오시는 조희성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의 모형인 예수님으로 말한 것이다. 구세주께서 1994년 1월 10일 구속당하실 당시 공소장에는 "조희성 교주가 신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이긴자, 생미르불, 정도령,



스스로 디자인하여 제작한 옷을 입고 멋진 표정을 짓고 있는 필자

대구로 이사를 와서 우리 가족이 어려운 사정 속에 있을 때 동생이 서울 큰 집 다녀오는 길에 서울역에서 승리제단 전도지를 받아서 곁에 접어서 가져왔습니다. 승리제단에서 서울역으로 노방전도를 나섰던 모양이었습니다. 동생은 대구승리제단으로 연락하여 제단을 나가게 되었고, 나간 지 며칠 안 되어 집에 올 생각도 안하고 경기도 부천(역곡)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집에 왔다가 가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동생은 내 편지를 받고 집에 내려왔고, 당시 동생은 고등학교 생이었는데 가족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제단을 그만 나가게 되었고, 제가 제단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역곡 승리제단에서 들었던 영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사람이 안 죽는다는 이야기는 제게 너무 솔깃하게 들었습니다. '피의 원리' 즉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는데, 예를 들면 욕심을 부리고 밥을 먹으면 체하는데, 체하는 것은 밥을 빨리 먹거나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고 밥을 먹을 때 피가 썩어서, 그 썩은 피가 위로 가는 모세혈관을 막게 되고, 그러면 피가 안 통하게 되니 체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쉬우면서도 믿어졌습니다. 따라서 욕심 부리는 것이 죄지, 잘못된 행동이 죄가

아니며, 욕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나오므로 진짜 죄는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내용은 정말 그럴 듯했습니다. 또한 죄만 안 지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도 전혀 안 해보았는데 제단에 가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녔는데 한번은 주님께서 대구제단에 오셔서 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고도 없이 그 긴 시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교회 목사들은 원고를 작성해서 할 텐데 어쩔 장시간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곳은 기성교회라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1일 교육을 받고 기도문을 받았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보니 신앙 생활수칙이 적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목욕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등등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신앙만 하라는 내용이라 제가 그런 생활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어 책임승사님께 승사님도 세상경험 다 해보고 오셨듯이 저도 세상 경험 다 해본 후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때 나이 21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기회가 가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나로 인해 가족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없다고 하시

니 나 때문에 진리를 접할 수 없게 해서 안 되겠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열심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화상(火傷)이 주님 은혜로 흉터 하나 없이 완치돼

어느 여름 날 집에서 엄마가 식사 중에 승능이 먹고 싶다고 펄펄 끓는 승능을 숟 채로 들고 나오시다가 내 다리 위에서 숟 채로 떨어뜨려 화상을 크게 입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화상부위가 하체 전체를 입었으니 집안이 발각 뒤졌습니다. 그 상처를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주님께서 축복한 수건과 생수를 바르니 흉터 하나 없이 두 달 만에 다 나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더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단 나온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1991년) 3층 공장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 위가 약해서 위장 치료를 하던 중이었는데 치료 중에 역곡에 있는 3층 공장으로 갔습니다. 미신을 배우면서 일을 하였는데 주님이 이 나보고 자제가 안 나온다고 볼 때마다 혼을 내시는데 위가 아파 몸을 숙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위가 아파서 그래요" 하고 말씀드리면 편의를 봐 주실 텐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만 끔끔 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 오셨을 때 복받치는 설움에 평평 울었습니다. "왜 우냐?"라며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는 위 아픈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 나와의 싸움

저는 어려서부터 약골이었습니다. 시골 장날(5일장)에 엄마 따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걸지 못하고 기어서 올 정도로 약했습니다. 원래부터 약하게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어려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집 마당을 청소하다 돌멩이를 버린다고 던진 것이 내 머리 에 맞아 머리가 터져 피를 많이 흘렸던 적도 있고, 동네 소꿉친구들과 놀다 때 너무 뾰족한 곳에 떨어져 피를 많이 흘렸던 적도 있고, 칼만 들면 손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서도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큰 언니가 빈혈이 심해서 회사에서 쓰러졌을 때 집에 데리고 와서 우간(牛肝)을 먹이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제가 언니를 닮았는지 건강검진 할 때마다 빈혈로 2차 검진을 받게 되고, 한 번은 병원 원장선생님께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런 몸으로 생활하느냐 먹고 있는 약이나, 처방받은 것이라도 있느냐고 물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의아해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약한 몸으로 봉제공장에서 미싱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목표량 100%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싸움은 치열합니다.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터가 바로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정해진 시간과의 싸움 나의 체력은 정해 놓은 시간까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제가 머리를 돌렸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힘을 내며 해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기에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어느 한 날은 제가 하지정맥이 있는데 다리가 저려 도저히 미싱을 할 수 없고, 미싱 관에 올려놓기만 하면 다리가 저려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정해 놓은 시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너무 아픈 날은 조퇴해야겠다고 목구멍까지 말이 나오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한번 쉬고 싶어 쉬면 다음에 또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뻔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졌다가 되고, 나를 편하게 해준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에 대해서는 일전도 이익 되는 일은 안 하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100%를 향해 돌진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공장에 오셔서 아침 조회 시간에 목표량을 150%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150%는 가히 상상도 하기 힘든 목표량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약하고 힘든 사람 뭉까지 능력되는 사람들이 해 주라고 동맹이를 버린다고 던진 것이 내 머리 에 맞아 머리가 터져 피를 많이 흘렸던 적도 있고, 동네 소꿉친구들과 놀다 때 너무 뾰족한 곳에 떨어져 피를 많이 흘렸던 적도 있고, 칼만 들면 손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자 / 포맹션

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피고인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면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신이 되는 이슬 성신을 받아먹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고 구세주가 돼 이긴자 완성자가 되어 성경말씀대로 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참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 요 10:34:35).

### 성경 상 7년 대환란은 구세주의 7년 옥중살이를 말함

현금을 일전도 하지 않은 사람이 현금을 몇 억씩이나 했다고 거짓말로 고소를 해서 징역을 한 번은 2년 8개월, 두 번째는 4년 1개월 징역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 상고로 구금일수가 삭감되어 첫 번째는 2년 6개월이 2년 8개월이 됐고, 두 번째는 4년 징역이 4년 1개월로 늘어나서 약 7년의 옥고를 치르신 것이다. "이 사람이 옥중살이 할 때에 이 사람이 날아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회하는 사람한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날아서 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날아서 가면 약조건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하였다.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세주가 7년 동안 옥중살이를 당할 것을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7년 대환란을 안 당하면 까짜입니다 - 2014. 6. 3. 본부제단 비디오 설교말씀 중에서"

앞으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신은 생명의 신인고로 마귀도 영생을 하고 죄인도 영생을 하고, 의인도 영생을 하고 똑같이 영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마귀와 죄인들은 불구덩이에서 펄펄 뛰면서 영원무궁토록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다. 구세주를 만나서 영생을 못 얻으면 너무나 무척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고로 불쌍한 사람을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세주의 몸으로 7년 동안 징역살이를 당하신 것이다. 보통 사람의 몸도 아닌 굉장하고도 귀한 구세주의 몸으로 7년 동안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은 죄인의 그 벌을 대신 받지 않고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릴 길이 없으셨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구세주가 나타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니 마귀들의 입장에서 큰일이 났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려고 구세주를 옥중에 집어넣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이므로 사람 자신의 주체 영이 마귀다. 그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실제로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사람이라고 부르게 한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성경에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시편 82: 6)'라는 구절과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니라(신명기 14:1)'와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라(요한 1서 3: 2)'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해서 사람이야?"라며 "세계적으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잘못된 학문을 전부 뜯어 고쳐야 돼!"라고 호령하시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박태선 기자



구세주가 겪은 7년 옥중고난은 성경 상의 7년 대환란이다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라는 대목이 있다. 이긴자의 죄명은 형식상으로는 '현금횡령'이었지만 그 내막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안 죽는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勝利眞經 p157 인용).

1심 판결(1994. 8. 30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구세주를 징역 4년으로 선고하자, 구세주께서는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항소이유서를 직접 작성하시어 제출하셨는데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조희성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어 말씀을 하시고, 예배 인도할 때에는 이슬이 내리고, 당시 말씀 중에는 앞으로 공산주의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였고, 계속해서 여름장마가 우

리나라에 지지 않으며, 또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어오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풍년을 짓는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인간 조희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참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영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 요 10:25~26).

또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품처럼 여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 성경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4장 2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